

## 고토의 동백

동백꽃은 고토 열도의 상징이며 아름답고 실용적이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에 강한 이 튼튼한 식물은 예로부터 집이나 농원의 방풍림으로 심었습니다. 고토에서는 약 4,000년 전부터 씨앗에서 기름을 뽑아왔고 지금도 동백의 나무와 잎은 각각 딸감과 차로써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토에서 볼 수 있는 동백의 주된 품종은 야부쓰바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7년에 발견된 품종은 후쿠에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마노우라 동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꽃잎 가장자리에 둘러진 흰 테두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쿠에지마 섬에는 약 270종의 동백나무가 자생하며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 동백기름

후쿠에에서는 동백기름 만들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유회사가 수확을 위해 동백나무 농원을 경영하는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은 씨앗도 이용합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주민들은 자택 부지 내의 나무에서 씨앗을 채취하여 제유회사에 kg 단위로 판매합니다.

정제소에서는 햇볕에 말린 씨앗을 분쇄하고 압착하여 기름을 추출합니다. 그 뒤 활성탄이 포함되어 있는 와시(일본 전통 종이)를 통해 기름을 저온 여과하는 것이 순수하고 품질이 좋은 기름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오늘날에도 동백기름은 주로 요리용과 화장용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발연점이 210~250℃로서 비교적 높기 때문에 볶음이나 마리네이드, 드레싱의 베이스 오일로서 적합합니다. 또한 비타민 E와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 함유량은 올리브오일을 능가할 정도로 높아 건강에 좋은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동백기름은 후쿠에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인 고토 우동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면을 손으로 늘릴 때 기름을 바르면 쫄깃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백기름은 오랜 세월 동안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피부나 머리카락의 보습제로 이용해왔습니다. 실제로 동백기름을 7~8세기에 고토 열도에서 중국을 향해 출항한 견당사선을 통해 당나라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누나 크림, 그 외의 미용 제품에도 폭넓게 사용되며, 고토 열도에서 나는 대부분의 오일은 고급 화장품 회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로 동백기름에 포함된 영양소와 지방산에 항염증

작용이 있으며 보습과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 동백나무 방풍림

부식성이 있는 염분을 포함한 강한 바닷바람이 농작물을 망치고 건축물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후쿠에의 경관에는 방풍림이 빠질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줄기, 늘 푸른 잎, 염분에 강한 성질을 가진 일본의 동백나무는 탄력성이 있는 자연적인 방벽입니다.

그러한 방풍림으로서 특히 인상적인 예 중의 하나가 연중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미이라쿠에 있습니다. 그 이름도 ‘동백나무 터널’입니다. 그 이름대로 동백나무가 쌍둥이처럼 연이어져 녹색의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마루하타라고 하는 이 지역의 독특한 둥근 발 주위 약 1km 를 거의 원형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동백나무들은 약 200 년 전에 규슈에서 박해를 피해 이 지역으로 들어온 기리시탄 이주민에 의해 심어졌다고 합니다. 터널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 가운데 한 그루는 성모 동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 기독교의 도상에 나타난 동백

유럽의 종교적 전통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가장 연관이 깊은 꽃 가운데 하나가 장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동백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토대학에는 마리아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묘사한, 17 세기에 그려진 작자 미상의 그림이 있는데, 한가운데의 패널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오른팔에 안고 왼손에는 흰 동백꽃으로 보이는 꽃을 들고 있습니다. 후쿠에의 교회에서는 동백꽃이 장식이나 도상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동백꽃잎은 실제로 5 장인데 이 종교적인 문맥에서는 십자가를 표현한것으로 보이는 4 장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습니다.